

“미얀마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홍성담·주흥·전정호·김화순 등 예술인 ‘생명평화 미술행동’

서울과 5·18묘지서 ‘연대’ 퍼포먼스…16~22일 메이홀 전시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광주다.’, ‘미얀마에게 생명을.’

쿠테타로 집권한 미얀마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발표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압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져 민주와 자유를 갈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오월 광주’를 떠올린다. 80년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광주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계 등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미술인들이 미얀마에 ‘연대’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참여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작업도 계속한다.

16일 오전 광주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었다. 홍성담 작가를 중심으로 한 ‘생명평화 미술행동’ 팀원들이다. 주흥·전정호·김화순·전혜옥·김자영·홍성민·주라영·고근호 등 9명의 작가는 자신들이 마음을 담아 제작한 만장과 피켓 그림, 걸개 그림 등을 들고 오월 영령들과 함께 미얀마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후 5·18 구묘역으로 이동해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생명평화 미술행동’은 하루 전인 지난 15

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자국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선 주한 미얀마 교민들과 함께 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알리기에 나섰다.

미술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40여 년 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저지른 한국의 군부 독재 학살행위를 2021년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판에 박은 듯 똑같이 자행하고 있다”며 “오월광주가 승리했듯이 오늘날 미얀마의 민중들도 기어코 승리할 것이고 우리 미술행동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 민주 시민들을 위한 미술행동 전시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 메이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를 동안 미술 행동 회원들이 사용한 각자의 피켓, 만장, 걸개그림을 낱 것 그대로 전시하며 행사 촬영 영상과 사진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는 성효숙·정정영·박건·서혜경·나운상·박성우·임의진 작가도 함께한다. 또 15~16일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은 미얀마 현지에서 투쟁중인 ‘미얀마 민주연대’로 보내 함께 하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생명평화 미술행동’ 회원들이 16일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을 지지하며 공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산수유’

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동인 ‘황토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 정동갤러리 초대전, 부산 타워 갤러리 초대전 등을 가졌다. 토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운영 어린이집 40개소 대상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관내 어린이집 40개소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를 운영한다.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고양이 모양의 디바이스와 모니터를 연결 후 북카드를 쏘면 그림책 화면과 동화구연을 제공하는 비대면 독서지원 서비스다. TV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독서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운영 대상 어린이집은 선착순 접수받고 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디바이스 1대, 북카드 30장, 북카드 목록’ 등 유아 누리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그림책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제공받는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am2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미얀마 응원 릴레이 연대시 <3>

바라보는 미얀마여, 바라보소서!

박관서

내게 젖을 물린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소서, 미얀마여!

왜 쓰았지, 왜 췌렸지,
트럭에 싣고 어디로 갔지, 오월이 되면

금남로에서 망월동에서 두부처럼 잘린 너의 유방과
꽃잎처럼 뿌려진 너의 붉은 핏자국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치가 떨리던 미얀마여, 바라보소서!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을 모든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지우는 저들의 눈을

눈으로 바라보소서! 푸죽간의 고기가 되어
법과 명령으로 살인을 즐기는 저들을

하나가 전부인 생명을 모르고
약자가 정의인 국가를 모르는

저들, 어미의 품에서 나서 어미의 품을
헤집어 찢어발기는 저들을 바라보소서!

돌아갈 곳 없는 무국적의 짐승들
빛도 그림자도 없는 무저갱에 갇혀

휘두르는 총칼을 수저나 골프채로 알고
단지 제가 제 살을 파먹는, 저들을

잊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새기고
새기며 바라보소서, 미얀마여!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역임 ▲제7회
윤상원문학상 수상 ▲시집 ‘철도원 일기’
등 다수

한국문예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오는 4월 5일까지 공모한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상주작가가 협력해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주작가 인건비(월 200만원)와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300만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도서관 활성화, 독서 인구 증대, 문인의 일자리 및 창작적 여건 제공을 위해 46개 도서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으로 상주작가 고용 및 협력이 가능하며 별도 창작 공간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도서관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31일까지 LH 휴랑갤러리

나무들이 전하는 단단한 생명력은 늘 경이롭다. 봄을 시샘하는 차가운 바람에도 꽃망울은 터진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꽃망울과 새싹,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나무들은 큰 의미로 다가온다.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시대를 달려온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담겼으니.

서양화가 고희자(송원대학교 교수)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LH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최근 몇년간 편안한 느낌의 수채화 작품과 유화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던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드로잉 작품 20여점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야외로 스케치를 나가

는 그의 눈에 최근 들어 자주 포착되기 시작한 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들이다. 늘상 보던 나무들이지만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색다름을 보여주는 게 흥미로웠고 그 소박한 모습을 스케치했다.

옆으로 한 없이 뻗어나가는 배나무나 늘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잔 가지가 매력적인 복숭아 나무 등이 모두 화폭에 담겼다. 자유분방한 가지 위에 얹힌 노란 산수유, 하얀 배꽃, 붉은 매화는 사실적으로 세밀히 묘사하기보다는 색감만 살린 채, ‘점’처럼 살짝 살짝 표현했다.

고목나무도 좋은 소재가 됐다. 세밀한 묘사 대신 음영만을 넣어 나뭇가지의 ‘본 맛’을 그대로 살렸다. 재료 역시 공예와 연필 등을 활용해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

조선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고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난 2016년부터 50년 역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